

우리식탁에 오르는 먹을거리 문제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요즘, 시골에 살면서 두부 한모에 따라 나오는 넉넉한 김치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다행임을 느끼고 있다.

경주와 포항 사이의 조그만 산골 마을이기에, 어느곳을 가더라도 아주머니가 내어 주는 김치에 납이 들었을까 하는 의심은 하지 않는다.

건너 편 마을에 있는 식당은 김치에 검은 빛깔이 나는데 김치맛이 낫다. 또 다른 집은 김치의 붉은 빛이 아주 곱다. 아직도 내가 사는 이 작은 동네에는 이집 저집 김치 맛이 달라 식객들은 맛을 논하곤 하지만, 이제 서울의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마음이 앞설 것 같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김치도 이미 중국산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1kg의 김치에 0.3mg의 납이 들어있는 중국산 김치를 자신도 모르게 먹어 왔다. 납은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에 이상을 주는 등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중금속이다.

국내에 시판되는 김치의 15%가 중국산이라고 한다. 중국산 김치 1kg에 1000원인데 한국산은 3000원이라면 수익을 남겨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산 김치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것이 훨씬 매력적이다.

중국산 김치에 납이 많은 것은 수년 전에 조기에



불자 세상보기

한 갑 소
위덕대 외식산업학부 교수

김치에 버무려진 '인과'

에 납을 넣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제조자에 약의가 있었다가 보다는 좀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한국쪽 수입업자와 이들의 수입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당국의 무관심이 주범이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국산 김치는 당분간 수입이 잠시 주춤하겠지만, 사람들의 기억이 흐려지는 시점이 오면 다시 늘어날 것이 뻔하다. 생산과정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정을 심각하게 다시 점검해야 한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김치가 한국에 들어오면 납이 문제가 되지만, 일본에 들어가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일본 사람들은 생산에서부터 중국에 들어가 현장에서 철저히 관리 한다고 한다. 중국산 김치를 중국에서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정부당국이 수입식품의 검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도 인과(因果)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어리석은 이기심을 앞세우기보다 인과의 무서움을 깨닫고 바로잡으려는 의식의 변

화가 절실하다. 중국산 김치를 들여와 1kg에 2000원을 납기지 말고, 1000원 정도 납기려고 한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최근 개강법회를 위해 학교를 찾았던 진각종 해정 종사님도 법문을 통해 "내 앞의 밥상에서 인과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다. "부엌에서 밥을 만드는 사람이 일부러 밥을 덜 익게 하고, 된장찌개를 맛있게 만들려고 하겠는가, 내가 그 정도의 밥상을 받을 인(因)을 지은 결과다"라며 좋은 인연 지을 것을 강조해 큰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 사람들이 먼저 김치를 생산하는 중국인에게 좋은 인을 만들지 않았으니 당연한 업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치 1kg에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을 들인다면 우리식탁에 오를 김치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훌륭한 김치가 될 것은 뻔한 이치다. 물론 경제적인 정확한 수치의 이익이 계산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수입업자들도 1kg에 1000원의 이익이 고마움과 함께 돌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바꾸어 보면, 생산자나 수입자나 판매자나 소비자가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 좋은 인을 지으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우리의 김치 맛을 돌려주지 않겠는가!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 중앙신도회에 첫 여성 회장이 추대된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한국불교 앞날의 여러 가지 긍정적 조짐 가운데 하나라 믿고 싶다.

추대된 김의정 회장은 모태불자로서의 독특한 신행생활은 물론,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7호 궁중다례의식 보유자인 '차인'이다. 이런 탄탄한 전통성과 함께 세계와의 교류를 위해 필요한 국제성도 갖추고 있다.

창립 50주년이 된 올해를 중앙신도회에서는 '회화 50년, 정진 50년'으로 규정짓는다. 나름대로의 성과를 지니고 있는 반 백년을 회향하고 다시 반 백년의 정진을 다짐하는 시점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결핍한 여성지도자를 추대했다는 것이 순리라는 느낌이다.

"인기 중 반드시 신도회관을 마련하고 재정자립에 전념하겠다"는 김 회장의 첫 다짐에서 우리는 50년 역사를 지닌 신도회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다.

중앙신도회 여성회장 1호

꼭질 많았던 역사는 있으며 물질적 정신적 인적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해 왔다는 현실이다. 재가자들의 신행공동체를 조직 활성화하는 일이며 불우한 이웃에 대한 관심, 화합하는 사회, 통일문제, 환경, 생명문제, 한국불교의 세계화 등 신도회가 앞장서 해야 할 일들이 변변한 신도회관 하나 없이, 재정자립 없이 가능하구나 한가?

또한 중신회는 정치권력이나 사회적 여러 영향에서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해야 하며, 종단의 종지 종통, 부처님과 원로 대덕스님의 가르침에 소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면 종단 안에서 조차 자주성을 지녀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로 실천하는 신행공동체와 새로운 신행문화 확립을 위한 첫 과제는 재가불자 교육이다. 지역이나 직능별 신행단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중신회의 기본 틀을 짜고, 그 힘을 높여 나가는 일도 우선해야 할 일이다.

김 회장의 추대에는 이밖에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속해 있어 던져져 있다.

사부대중, 승가 공동체 전체의 화합을 이끌어 내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지혜롭게 풀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한다.

김정자(칼럼니스트)

조계종 총무원장 이런 사람을 바란다

10월 31일 치러질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통한 종단의 화합을 바라는 종단 안팎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종단 내 오피니언 리더들이 밝히는 새 총무원장의 기준과 바람을 들어본다.

○... 법장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을 맡는 등 복지 원력을 많이 세웠었다. 신임 총무원장도 그런 분이었던 좋겠다. 불교계에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복지분야가 많이 있다. 승려노후복지부부도 시급하다. 전 총무원장 스님의 원력을 이어받는 것은 물론 이런 상황들을 잘 규합할 수 있는 분이 총무원장이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복지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며 길러진 복지 마인드를 갖춘 분이 필요하다.

○... 개인적으로 강원을 나온 뒤 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춰 승단이나 승단 바깥으로도 '열린마인드'를 가진 스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폐쇄성을 벗고 사회가 원하는 불교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이끌어 줄 스님이 총무원장이 되기를 바란다. 덧붙여 후보로 나오시는 스님이나 선거권을 가진 스님들 모두 수행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 개인적으로 강원을 나온 뒤

는 총무원장을 기대한다.

○... 종단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불교종단은 투명한 운영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일반 사회의 눈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총무원장이 될 스님은 바로 이 점을 중심으로 삼아 종단 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또한 스님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화합할 수 있도록 원용화 함으로 이끄는 것은 총무원장이 될

과 학문과 덕망을 갖춘 분이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존경 받는 분이 되어야만 불교계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자타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분으로서 선거보다는 추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사회에 대한 인식도 높은 분이여야 할 것이다.

불교출판인으로서 바라고 싶은 것은 '전국의 모든 사찰에 의무적으로 도서실을 설치하도록 해 줬으면 한다. 불자들이 사찰에 갈 때마다 좋은 불

법장 스님이 생명나눔실천운동을 널리 퍼뜨려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재고했듯이, 앞으로도 불교계가 적극적인 대사회운동을 통해 사회 속에 불자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 조계종 포교사단 양성총대장

○... 종단이 두루두루 추대를 받아 평화로운 방식으로 선출되고, 선출된 뒤에는 종단 내 모든 스님들이 승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기대한다. 그런 만큼 새로 선출되는 총무원장 스님은 평소의 행동에도 한 점 흠이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해서 모든 의혹을 종식시켜주는 모습을 바라는 것이다.

또 사회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있어 조계종 내의 각종 산하단체 및 재가사회단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종무원들을 감싸 안고 사부대중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스님이기를 바란다.

○... 대안불교청년회 김익석 회장

○... 과도기적인 상황인 만큼 다음 총무원장은 전문성왕 같이 훌륭하게 사회를 다스리고 통할 수 있는 분으로 선출되기를 바란다. 특히 역대 총무원장들이 총무행정위주 정책으로 종단의 내실을 다지는데 앞장섰다면, 새로 선출되는 총무원장은 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포교에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

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김혁욱 원장 (무순)

종단 화합·정체성 살리며 적극적인 포교·사회활동 필요

동국대를 다니면서 대학생 포교에 대한 심각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동국대 석림회가 20여 개 대학에 법사단을 파견하고 있지만 불교학생회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여태껏 총무원에 대학생포교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불교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높고 있지만 종단은 이러한 호기를 활용할 준비가 너무나 미흡하다. 이제는 종단차원에서 적극 나서 어린 이·청소년 포교에 나서야 한다. 이를 종단 정책으로 반영하고 추진할 수 있

스님이 꼭 해야 할 일이다.

○... 수행자로서의 본래면목에 충실한 분이길 바란다. 우선 행장과 섭외에 능해서 종단살림을 살뜰하게 꾸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상 중요한 덕목은 청정함과 수승함이다. 그러한 바탕위에서 생활 속의 불교, 청년들이 중심인 불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무 행정에 반영하는 어른이길 기대한다.

○...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은 수행

서를 읽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도 신도 교육과 포교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 불교출판문화협회 윤정희 부회장

○... 과도기적인 상황인 만큼 다음 총무원장은 전문성왕 같이 훌륭하게 사회를 다스리고 통할 수 있는 분으로 선출되기를 바란다. 특히 역대 총무원장들이 총무행정위주 정책으로 종단의 내실을 다지는데 앞장섰다면, 새로 선출되는 총무원장은 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포교에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

'연대' 민명

심민섭



위기를 정진의 기회로! 종단의 발전을 위해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 창립법회"에 참여합니다.

금번 총무원장 선거를 종단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모습으로 치러내기 위해 젊은 스님들이 뜻을 내었습니니다.

종단의 어른스님들을 모시고 금번 선거를 승가의 전통에 맞게 대중의 뜻을 잘 모아내는 발전적인 모습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 승가 대중이 대중을 향해 스스로 약속하는 서약서에 서약하는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어른 스님들의 지도와 젊은 승가의 정진의 힘으로 다시 한 번 한 단계 성숙되는 종단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 ◆ 이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서약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모든 승가 구성원이 서로서에게 좋은 선거 분위기를 만들자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모든 대중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 다 함께 창립법회에 동참함으로써 종단의 발전에 참여 합니다.

◇ 일시 : 2005년 10월 7일 금요일, 오후 4시 ◇ 장소 : 조계사 설법전

- 준비위 : 위원장(금강) 서명홍보준비팀장(종선) 교육정책준비팀장(원명) 감시팀장(희문) 사무팀장(하림) 외 30여명의 스님
● 연락처 :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
● 장 소 : 조계사 신도회관 3층, 전화 02)732-8463~4 / 팩스 02)732-8465
● 홈페이지 : www.seungga.org 이메일 seungga@seungga.org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 창립준비위원회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히규 실화소설 운명



소설 <운명>은 50%의 종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 주요수독내용 ■
공감이야기
성기가 말을 만들어요
땀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뀌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인시 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 번 결혼한 검사님
인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 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년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히규) 농협 601175-52-016521

■ 책속 부록 ■
▶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꿈 해몽 비법 ▶ 띠로 보는 궁합
▶ 달로 보는 궁합 ▶ 시(時)로 보는 궁합
▶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 삼재법

서울·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화 (02)365-8172
팩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